

민주당 참패... 새누리당 과반 유지

새누리 152석 민주 127석 통합진보 13석

민주, 서울·경기 압승하고도 제1당 실패

관련기사 2·3·4·5·6·7·8·9·10면

4·11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여당의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반면, 야권 연대를 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두 정당의 의석을 합쳐도 새누리당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결국, 민심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집권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준 야권 지도부에 회초리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11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12일 새벽 2시 현재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과반을 1석 웃도는 152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 자유선진당은 5석, 기타 무소속은 3석 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야권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것은 민주당이 공천과정에서 잇단 잡음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집권 대안 정당으로서 가능성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야권 지도부의 잇단 실책과 판단 착오가 예상과 정반대의 선거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민주당은 수도권 65곳에서, 통합진보당은 4곳에서 우세를 보였 다. 총 112석 가운데 69곳에서 우세를 나타내 새누리당(43석)을 크게 앞서며 야권연대의 위력을 과시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선전이 기대됐던 부산·경남에서는 문재인·조경태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는 야권에 다소 밀렸으나 강원도에서 9석을 쓸쓸이하고 영남의 전체 67개 지역구 가운데 63개를 차지하며 초강세를 이어갔다.

지역구도 타파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광주 서구을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대구 수성갑의 민주당 김부겸 후보, 부산의 민주당 문성근·김정길·김영춘 후보가 낙선하면서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이처럼 여당이 압승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쥔에 따라 야권이 추진하

고자 했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대통령 측근 비리·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 등에 대한 특검 또는 청문회 등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의 대권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진 반면 민주당 한병숙 대표의 책임론 속에 거취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같은 선거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이해훈 선거상황실장은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100석도 못 얻은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변화와 해신을 위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국민이 주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은 “민주당은 여러 미흡함으로 인해 현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의 여운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오늘의 의미를 깊이 반성하고 새겨서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19개 선거구 중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광주 서구갑 박혜자 후보가 11일 밤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서구을에 야권연대 후보로 출마한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당선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27년 만에 첫 보수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배출 여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광주 서구 을 선거구는 야권연대 오병운 후보가 52.36%를 득표해 39.70%의 득표율에 그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오 후보의 당선으로 광주에서 사상 첫 진보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던 광주 동구 선거구는 무소속 박주선 후보가 양형일 후보와 막판까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456표라는 근소

한 차이로 이겼다. 애초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광주 서구 갑은 민주통합당 박혜자 후보가 42.11%의 득표율로 무소속 정용화, 조영택 후보를 여유있게 제치고 무소속 돌풍을 잠재웠다.

전남에서는 전체 11개 선거구 가운데 박지원(목포), 김성곤(여수 갑), 주승용(여수 을), 배기운(나주·화순), 우윤근(광양·구례), 김승남(고흥·보성), 황주홍(장흥·강진·영암),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이운석(무안·신안), 이낙연(담양·함평·장성·영광) 후보 등 민주통합당 후보 10명

이 당선됐다.

순천·곡성 선거구에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가 56.39%의 득표율로, 3선 순천시장을 지낸 민주통합당 노관규 후보(40.62%)를 제치고 당선됐다.

전북에서는 11개 선거구 중 9곳을 민주통합당이 승리했으며,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후보가 1석씩을 가져갔다. 한편, 투표율은 광주 52.7%, 전남 56.8%로 지난 18대 투표를 42.5%와 49.9%와 비교해 10.2%포인트, 6.9%포인트 상승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시장 조충훈

강진군수 강진원

무안군수 김철주

시군 단체장 보선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진 전남 순천 등 3곳 시군 단체장 보궐선거는 민주통합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곳 당선됐다.

순천시장 선거는 무소속 조충훈 후보가 36%를 얻어 민주당 허정인(28%)후보를 눌렀다.

강진군수 선거는 민주당 강진원 후보가 74%를 획득, 정통민주당 차봉근 후보를 1만여표 차 이상으로 대승했다.

무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김철주 후보가 41%로 통합진보당 김호산(28%), 무소속 양승일(25%) 후보 등을 따돌렸다.

이들 시군은 단체장이 모두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자리가 공석, 보궐선거를 치렀다.

한편 이날 함께 치러진 전남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서정환(여수 3선거구), 김상배(여수 4선거구) 후보가 당선 됐으며 5선거구와 6선거구에서는 통합진보당 김민곤·천준근 후보가 당선됐다.

또 여수시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노순기·이상우·김종길·최무경 후보와 무소속 강재현 후보가 당선됐다.

여수의 경우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가 무더기로 치러진 것은 여수 야간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 전일 오후 선거 여수시장으로 부터 급급을 수수,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 = 임문택기자 mtlim@

집나간 무소속들 힘 못썼다

민주 광주·전남 19개 의석중 16석 차지 텃밭 재확인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광주·전남지역 19개 의석 중 16석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텃밭임을 확인했다. 통합진보당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석을 차지하며 교두보를 구축했고, 광주 서구을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40%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의 야성을 위협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날 총선 개표 결과 광주·전남지역 19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16석, 통합진보당이 2석, 무소속 후보가 1석을 각각 차지했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에서는 박혜자(서구 갑), 장병완(남구), 강기정(북구 갑), 임내현(북구 을), 김동철(광산구 갑), 이용섭(광산구 을) 후보 등 민주통합당 후보 6명이 당선됐다.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3월 1주와 4월 1주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박 목포-제주도 **풍격 ₩139,000~ 실속 ₩109,000~**
장흥-제주도 **풍격 ₩159,000~ 실속 ₩14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 석식, 수송비 (광주-목포&장흥)

선박+항공 목포+무안공항 ₩13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 유류할증료 (₩13,200) 석식, 수송비 (목포-광주)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 석식

울릉도 2박 3일 ₩325,000~ 1박 2일 ₩294,000~
홍도, 흑산도 1박 2일 ₩189,000~

시티투어포토스테판과 울릉공의 만남 6일 ₩1,090,000~
특전: 5대특식 3성급호텔, 시티투어, 모노레일탐승, 프로폴리스 치약1개 제공(객실당)
불포함: 유류할증료 (₩350,000), 기사&가이드팁 (\$60)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4일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온도 (출발확정) ₩369,000
출발일: 4/22, 5/1, 9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일본 전통로칸 스키유 마을 온천 즐기기 ₩499,000
출발일: 4/22, 5/1, 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20,000)

4일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519,000
출발일: 4/22, 5/9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풍격]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교토, 와카야마 ₩899,000
출발일: 4/24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단4회 파격특가] 발리 5일 ₩549,000
출발일: 4/13, 20, 23, 26
특전: 그린파크워터파크 물놀이 (판매가\$30), 발리의열대과일바구니 (\$30), 전통마사지1시간(\$20), 3대특식, 나이트투어+매직쇼포함
불포함: 유류할증료 (₩185,000), 도착비자(\$25), 가이드&기사팁 (\$50), 중식1회

[급로객] 캄보디아 5일 ₩749,000
출발일: 6/8
불포함: 유류할증료 (₩162,000), 비자비&사전 (\$25), 기사가이드팁 (\$40)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포르/바탐 3박 5일 (상해경유)

3박5일 상해/싱가폴(1박)/바탐(2박) ₩1,149,000~
3박5일 상해/싱가폴(2박)/바탐(1박) ₩1,21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인도네시아 입국비자(10\$), 매니팅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4일 무안-북경/평요/면산 ₩869,000~
5일 무안-북경/평요/면산 ₩919,000~
4일 무안-상해/장가계 ₩899,000~ (※4/23-출발확정)
불포함:개인경비,중국단체비자,기사&가이드팁

4일 무안-상해/장가계 (※4/30-출발확정) ₩1,020,000~
5일 무안-상해/장가계/주가각 (※5/17-출발확정) ₩1,150,000~
※ ALL포함, 무안출·도착기준

4일 무안-북경/만리장성 ₩369,000~
5일 무안-북경/만리장성 ₩399,000~
4일 무안-상해,항주,소주 ₩379,000~
5일 무안-상해,황산,항주 ₩579,000~
5일 무안-상해,황산,삼청산 ₩619,000~
불포함:유류할증료(₩120,800),단체비자,가이드&기사팁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상해경유)

알뜰 ₩839,000~
실속 ₩789,000~
풍격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니팅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3박 4일 상해/홍콩/심천 ₩849,000~
3박 4일 상해/홍콩/마카오 ₩859,000~
4박 5일 상해/홍콩/심천/마카오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니팅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4-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행객 가입업체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전지역

•공동조찬: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입출)만, 기사&가이드 통사료, 선객관람 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